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Top 3 생명보험회사, 투자 손실로 3/4분기 실적 부진

□ 중국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3/4분기 당기순손익을 발표함.

- 중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(中國人壽)은 작년 동기 대비 70%이상 급락한 23억 4,000만 위안(4,820억 원)의 순이익을 기록함.
- 2위 생명보험회사인 평안보험(平安保險) 역시 정부의 구제를 받은 벨기에-네덜란드계 합작금융그룹 Fortis에 대한 투자손실로 인해 78억 위안(1조 6,079억 원)의 순손실을 기록함.
- 3위 생명보험사인 태평양보험(中國太保)도 투자 손실 영향으로 3/4분기 순손실액이 16억 4,000만 위안(3,381억 원)에 달한다고 발표함.

□ 지난해 막대한 주식투자 이익을 거두었던 중국 Top 3 생명보험회사들은 올해들어 주식시장의 폭락, 해외투자 실패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함.

- 작년 동기 대비 44% 감소하여 111억 위안(2조 2,882억 원)의 투자수입을 기록한 중국생명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것으로 평가됨.
- 3/4분기 평안보험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7% 급증한 반면 투자 수입은 포티스 그룹에 대한 투자 실패(약 200억 위안 투자 손실 추정)로 81% 감소하여 31억 위안(6,390억 원)을 기록함.
- 태평양보험 또한 15억 1,000만 위안(3,113억 원)의 3/4분기 투자 손실을 기록, 지난해 같은 기간 81억 7,000만 위안(약 1조 6,842억 원)의 순이익을 챙긴 것과 대조되는 결과를 보임.
- 올 한해에만 거의 70% 이상 급락한 중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폭 확대 및 장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보험회사들의 실적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
(로이터 10/27,
블룸버그 통신 10/27,
제일재경일보 10/21)